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0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음 11월 14일) 제219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전북 주요통계지표 '희망적'

지난 10월 수출실적 전년보다 29.2% 증가  
경제고통지수 3.9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아  
작년 농업소득액 2013년대비 24.6% 늘어

전북도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도 수출이 전년대비 29.2% 증가하는 등 전북의 주요통계지표가 희망적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중단, 익산 넥솔론 폐업,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도내 산업 생태계의 붕괴 위협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수출실적이 2017년 10월 누적액 51억불 대비 15억불 증가한 2018년 10월 66억불을 달성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29.2%)이며 2위인 충북(20.4%)보다 8.8% 보다 많은 증가율이다. 수출액 증가의 주요원인으로는 전라북도의 해외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으로 도내 기업체들이 터키 등 8개국과 신규 수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도내 기업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전라북도는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행사에서 '2018 수출 지원기관 대통령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실업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해

경제적 고통을 수치화한 2018년 10월 경제고통지수 조사에서 16개 광역시도 중 전북은 3.9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고통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3.5)이고 두 번째로 낮은 지역은 전북,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6.3)로 나타났다.  
경제고통지수가 높을수록 실업자가 많고 물가가 비싸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고통이 크다는 것을 뜻하는데, 전북의 경제고통지수가 낮은 이유는 10월 실업률이 1.9%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로 전국 평균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된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기준 전북도의 순수 농업활동에 의해 창출된 소득인 농업소득액은 983만원으로 전국 9개 광역도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대비 농업소득액 증가율은 24.6%로 제주(32.5%)에 이어 전국 9개 광역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민선6~7기 핵심공약인 삼락농정의 가시적인 성과로 생산시설 현대화, 산지유통구조 개선 등 농업발전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전북은 2017년 기준 '후계농업 경영인 수'가 308명으로 전국비중의 17%를 차지하고 경북 340명에 이어 전국 9개 광역도 중 두 번째로 많았다.  
'농식품 6차산업화 인증'은 전국 1,397개소의 15.34%인 215개소를 차지하여 전국 1위이고, 2016년 기준 '유리온실 면적'은 전국 381ha의 26.8%인 102ha를 차지하여 전국 1위로 농업성장 잠재력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하진 도지사는 "2019년에도 철차타마(切差踏磨)의 자세로 그동안 쌓아온 성과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며, 정책적 진화를 통하여 신규 창업기업 지원, 기존기업 경쟁력 강화, 삼락농정의 효율적인 추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본격추진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북경제 체질개선은 물론 전북 대도약 원인을 이루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진성 기자



올해 전북체육을 총 결산하는 '2018 전북체육상' 시상식이 19일 전주 오벨리스웨딩홀에서 열렸다. 사진은 수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 우리 지역을 빛내다... 전북체육상 시상식

대상은 역대 유동주 선수... 지도자 등 44명에 도지사 표창

올해 전북체육을 총 결산하는 '2018 전북체육상' 시상식이 19일 전주 오벨리스웨딩홀에서 열렸다.  
전북체육상 시상식은 전북체육 발전과 진흥을 위해 노력, 뚜렷한 공적을 세운 체육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는 자리로 체육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특히 지난 10월 익산 등 도내 일원에서 열렸던 제99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주역들이 한데 모여 체육 강도의 위상을 내년도에 이어가자고 다짐했다.

이날 시상식은 체육대상과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지도부문 등 총 8개 부문에서 이뤄졌고, '별종의 별'인 체육대상에는 올해 전국체전에서 3관왕을 차지한 역대 유동주(진안군청) 선수가 선정됐다.  
전문체육에서는 전국체전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한 양궁 김경은(우석대) 선수 등 7명이 생활체육에서는 익산시승마협회 최재근 회장 등 11명이 선정됐다.  
학교체육에서는 육상의 유규민(진

북체고) 등 12명이 선정됐고 지도부문은 전북도청 김경열 레슬링 감독 등 총 3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체육의 자랑스러운 영광의 얼굴들이 모두 모였다"며 "앞으로 새로운 100년, 미래 1000년을 준비하면서 체육강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몰입양력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체육상 시상식과 함께 전북 체육발전에 헌신한 공을 인정받은 지도자와 종목단체 관계자 등 44명에게 전북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장은성 기자

## '카카오 카풀 도입 반발' 전주 택시 20일 휴업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참석  
카카오 카풀 도입을 반대하는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일 국회 앞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주 개인택시단위조합은 이번 대회 참석으로 20일 0시부터 자정까지 일반택시 1,521대 및 개인택시 2,339대 전체에 대한 휴업을 예고했다.  
이는 강제사항이 아닌 자율 결정으로 상당수의 택시가 정상 운행이 될 것으로 보이나 상황이 변동 될 가능성

도 있다.  
전주시는 양 택시조합에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으나 시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시내버스 이용, 승용차 합승타기, 가까운 목적지는 자전거 이용이나 걸어서 다닐 것 등을 아파트 안내 방송 및 버스 승강장의 안내문 부착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장병호 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자가용 함께 타기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려 택시 휴무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지역 일부 학원 옥외가격표시제 지키지 않아

가계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 중인 '학원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학원에서는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주교육지원청에 신고된 학원 수(학원 730곳, 교습소 187곳)는 총 917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주시 소재 신고된 403곳(43.9%)의 학원을 대상으로 학원 교습비 내부 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50곳(12.4%)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가격표시의 경우 58곳(14.4%)이 외부에 교습비를 표시하지 않았다. /김영태 기자

매일 INDEX  
3면 - '위험의 외주화 방지 산안법 개정'  
4면 - 최규호 전 교육감 검찰 조사 발표

## 전북현대 최강희 전 감독, 공로부문 수상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 지사)는 19일 전주오벨리스웨딩홀에서 2018 전북도체육상 시상식을 갖고, 전북연고 프로축구팀인 전북현대모터스 FC 최강희 전 감독에게 전북체육상(공로부문)을 수여했다.  
최강희 감독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14년 동안 전북현대모터스 FC 사령탑을 맡으면서 K리그 총 6회 우승과 아시아챔피언스리그 2회 우승, FA컵 1회 우승 등 금자탑을 쌓아올리며 비교적 약체로 평가 받았던 전북팀을 명실공히 아시아 최

강의 명문구단으로 성장시켰다.  
전북체육회 회장인 송하진 도지사는 이러한 전북현대구단의 눈부신 도약에 기인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최고의 관객 동원수를 기록하는 등 전북의 축구 열기가 한층 뜨거워지게 만든 장본인으로서, 또 한편 봉동이장을 자처하며 전북에 대한 사랑 또한

남달랐던 최강희 감독의 공로를 패에 담아 전달했다.  
체육회 관계자들과 수상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시상식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이 축구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최강희 감독의 공로로, 덕분에 14년이라는 시간동안 전북도민이 축구로 뜨거웠고 축구로 하나가 되었다"며 "비록 아쉽게 전북을 떠나지만 중국에 가서도 베트남 박항서 감독보다 더 훌륭한 지도력을 보여주며 국위를 선양해 줄 것을 확신한다"면서 그동안 최 감독의 전북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헌신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진성 기자